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부

현재의 진리를 시험하기

Jeff Pippenger

2025-12-02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며,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서 성경의 모든 구절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천적 진리의 중대한 요점들이 신비 속에 가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세상이 시험을 받아야 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게 되고, 마침내 고리와 고리를 찾아내어 완전한 사슬로 이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사실은 누구도 길을 잘못 들거나 어둠 속을 걸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흐름을 따라 시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계시된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 위에 비추는 빛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과거 세대에 살았던 이들은 그들에게 비추도록 허락된 빛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하는 성경의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마음을 쏟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빛에 대해서는 그들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과 관련된 특별한 진리가 펼쳐지는 때는 이 땅에 살게 될 마지막 세대들이 살아가는 때입니다.

"특별한 진리들은 각 세대가 살아온 형편에 맞게 조정되어 왔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현재의 진리는, 오래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았다. 만일 제4계명의 안식일에 관하여 지금 우리에게 비쳐 오는 빛이 과거의 세대들에게도 주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을 것이다." 증언, 제2권, 692, 693쪽.

새것과 옛것

모든 시대마다 진리에는 새로운 전개가 있으며, 그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옛 진리들은 모두 필수적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펼쳐져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옛 진리를 이해할 때에만 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밝히고자 하셨을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24:27. 그러나 옛 진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새롭게 펼쳐질 때 비추는 그 빛이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실상 옛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서 옛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그저 생기 없는 형식으로 전락한다.

신약을 거절하면서도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그들의 구약에 관한 가르침조차도 진정한 능력이 없다.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제쳐 두는데, 이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39. 그들이 구약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신약도 거부하는 셈이 된다. 둘 다 불가분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복음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없고, 율법 없이 복음을 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다. 율법은 복음이 구현된 것이요, 복음은 율법이 펼쳐진 것이다. 율법은 뿌리요, 복음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과 열매이다.

"구약은 신약을 비추고, 신약은 구약을 비춘다. 각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시이다. 둘 다 진지한 구도자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의 깊이를 드러내게 될 진리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128.

현대 진리는 정의상 '분명히 보이고 설명되는' 특정한 기간을 위한 '계시된 진리'이다. '현대 진리'가 계시되는 때에 살아 있는 세대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세대'를 위한 '현대의 시험 진리'를 이루는 결합된 진리들은, '특별한 진리들의 전개'가 '이 지구의 역사 마지막 장면들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으로 표현된다. 진리, 곧 '현대 진리'는 구약과의 관계에서 신약에 의해 예표된다. 진리는 두 증인에 근거하여 확립되며, 진리에는 시작과 끝, 문자적과 영적, 고대와 현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밀러주의적 토대는 셋째 천사의 "현재 진리" 기별에 비추어 볼 때 "옛것"이다. "옛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새것도 거절하는" 셈인데,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사역자들이 어디에서든 광신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보았다. 사탄은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고 있으며, 우리가 그를 경계하고 그의 계략과 울무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를 명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진리'이다. 나는 사역자들이 현진리의 중요한 요점들에서 벗어나, 무리를 연합하게 하고 영혼을 성화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주제들에 머무르는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여기서 이 사업을 해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점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2,300일과 관련하여 성소,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 운동을 설명하고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보여 주며 의심하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나는 자주 보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사자들이 집중하여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이었다. 초기 저술, 63쪽.

"성소(2300일,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과 관련하여)"는 밀러파의 "과거 재림 운동"을 설명하는 열쇠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설명한다. "과거 재림 운동"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확신을 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미래에 확신을 주는 것은 과거이다.

요엘서는 현재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의 메시지다. 이는 여러 증인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듯 예언의 영, 곧 예수의 증언에 의해 요엘은 '현재의 진리'로 규정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하셨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리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요한계시록 1:1, 2.

요한의 "증언"(그가 "증거한" 바)은 세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언", 그리고 "그가 본 것들"을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두 절에서 요한은 "예언의 영"의 은사를 받은 자로 묘사된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포함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그리스도께서 직접 또는 그의 천사적 대리자들을 통해) 예언자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계시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은사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제시되는 진리도 포함한다. 예언의 영은 예언자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증언이며, 그것은 천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되, 그리하지 말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함께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10.

가브리엘은 자신이 요한과 같은 종이며, 경배받아서 안 된다고 밝힌다. 또한 가브리엘은 요한이 대표하는 "형제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예언의 영"이라고 밝힌다. 요한이 대표하는 "형제들"은 십사만 사천 명이며, 그 형제들 모두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아갔고,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역대하 20:20.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사야 8:20. '율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구절이 제시된다.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의 영은 그분의 백성이 모든 상황에서 인도받도록 하는 지혜의 두 근원이다. 신명기 4:6. '이것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총명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이 큰 민족은 지혜롭고 명철한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영은 교회를 인도하고 권면하는 일에 긴밀히 협력하며, 교회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를 인정할 때마다 예언의 영이 진리의 길로 교회를 인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아왔다.

요한계시록 12:17. "용은 그 여자에게 격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 예언은 남은 교회가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언의 은사를 지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예언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구별해 왔으며, 그 시험은 대개 현재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주어진다.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는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신 말씀은 의심하며 제쳐 두어 그 말씀이 지닌 힘과 권능이 허비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는 것 외에는 달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때에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대하여 기록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온전함과 능력으로 교회에 드러내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등장할 때, 예언의 은사도 즉시 회복되었다. 이 은사는 이 기별의 전개와 추진에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해 왔다.

"성경의 해석과 사업의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생겨, 기별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사업에 분열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언의 영은 항상 그 상황에 빛을 비추어 왔다. 그것은 항상 믿는 무리에게 사상의 일치와 행동의 조화를 가져왔다. 기별이 전개되고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영의 빛을 굳게 고수한 자들이 승리했고, 그들의 손에서 사업이 번창하였다." Loma Linda Messages, 33, 34.

요엘서는 예언의 신에서 "현재 진리"로 직접 지칭되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 따르면 예언의 신은 곧 예수의 증거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입증된다. 성경과 예언의 신 모두는 요엘서를 말세에 직접 적용한다.

옛 선지자들 각자는 자기 시대를 위한 것보다 우리 시대를 위한 말을 더 많이 했으니,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어났고,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1 Corinthians 10:11. '그들이 전한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곧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이니,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1 Peter 1:12. ...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성경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고, 또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요엘의 예언은 "세상 끝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말은 "현재의 진리"가 항상 시험임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며,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유다와 같은 성경 인물들로 대표된다.

거듭 거듭 주어지는 교훈도 유다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오늘날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율법의 빛에 비추어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품성을 보게 되지만, 요구되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죄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계속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시대와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말씀하셨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증언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바로 그 교훈들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역시 같은 실패를 범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1년 3월 17일.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을 예표하며, 밧모 섬으로 유배됨으로써 일요일법 위기 속에서 박해받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는 왜 수감되었는지 밝힌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계시록 1:9.

요한은 성경과 예언의 신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왜 예언의 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선지자 요엘이 지적하는 첫 번째 진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배도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이 요엘서의 성취라고 밝힐 때, 그는 유대인들이 '방언'의 나타남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세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예표하는 자들이었는데, 베드로와 그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도 베드로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늦은 비의 기별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늦은 비의 '현대 진리' 시험 기별을 전하는 이들이 '옛' 기초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새 진리는 언제나 옛 진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늦은 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옛 길로 행하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거부한다. 기초적인 '옛' 진리의 기별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로 상징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땅의 안식일이라는 관점에서 언약 관계를 규정한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유다처럼 우리를 가톨릭 측에 넘겨, 그들의 영향력을 얻어 진리를 대적하려 하리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관습을 아는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그들은 안식일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였다)은 성도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가톨릭 측에 고발하여, 그들이 백성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이다. 곧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무시한다고.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고, 개신교인들은 일곱째 날 대신 한 주의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칙령을 내린다. 그리고 수가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인들의 편에 설 것이다. 가톨릭은 그 권세를 짐승의 형상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성도들을 멸하려고 그들의 어머니가 앞서 행하던 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칙령이 열매를 맺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스폴딩과 매건, 1, 2.

화이트 자매는 두 차례에 걸쳐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을 지목하면서, 이 두 "명목상의 집단"과 "가톨릭"을 구별한다.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안식일 때문에, 그것을 반박할 수 없어서" "미워했다." 명목상의 교회와 가톨릭은 제칠일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고,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반박"할 수 없는데, 그것은 땅의 안식일 계명이다. 명목상의 교회와 가톨릭은 제칠일 안식일이 "기초적인" 성경 진리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고,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가 "기초적인" 밀러주의 진리라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다.

밧모 섬에서의 요한의 유배는 성경과 예언의 영을 함께 받들고, 특히 외부로부터는 일곱째 날 안식일 때문에, 내부로부터는 땅을 위한 일곱째 해의 안식년 때문에 박해를 받는 14만 4천을 상징한다. 이 때문에 9절에서 자신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요한의 증언 다음에는 10절의 안식일과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의 '뒤에서' 온 과거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밧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9, 10.

요한은 9/11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의 '옛 길'로 돌아가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은 자들을 대표한다. 그 큰 음성은 일곱째 나팔의 경고였으며, 곧 셋째 화이기도 했다.

화이트 자매는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 그 보화들을 쌓아 하나로 묶어 두었다"고 기록했다. 요엘서는 '마지막 때'의 현재 진리인 성경의 '보화' 가운데 하나이다. 오순절 당시 베드로는 그때 성취되고 있던 것이 요엘서임을 지적했다. 베드로는 요엘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시대보다는 우리 시대를 더 겨냥하여 말했다. 오순절의 시기는 기독교 시대를 위한 이른 비였다. 오순절은 기독교 시대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래서 기독교 시대의 끝을 보여준다. 기독교 시대의 끝은 오순절에 의해 표상된 늦은 비의 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 성령의 부어 주심의 성취를 식별하는 기독교 시대 말기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직 낮 제삼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듯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선지자 요엘이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운이라.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가 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4-21.

예언의 학생으로서 성공하려면, 성경의 역사적 서술 속에서 세상의 끝이 "한 줄 한 줄"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이해해야 한다. 이 진리와 연결되는 것은 선지자들 자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요엘은 자신의 책을 마지막 때에 두는데, 그것이 "주의 날"의 다가움을 알리기 때문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온 땅의 모든 주민은 떨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임하나니,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요엘 2:1

'나팔'은 상징으로서, 여러 의미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상징으로서 나팔은 문맥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나 특정 시점, 혹은 그 둘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나팔은 또한 심판을 의미한다. 대속일 열흘 전에 있는 나팔절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다.

"주의 날"은 그 표현이 사용된 본문의 문맥에 따라 하나의 시점일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일 수도 있다. "주의 날"은 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대표되는 집행 심판의 상징일 수도 있고, 천년기의 끝에 있을 집행 심판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나팔은 하나님의 집행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징벌이 집행되는 시점, 혹은 하나님의 징벌이 집행되는 기간을 가리킬 수 있다.

'주님의 날'과 마찬가지로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일곱 나팔이 보여주는 역사적 시점과 기간에서 보듯이, 하나의 시점과 기간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불려야 할 '나팔'로 요엘이 나타내는 '주님의 날'은 죽은 자들의 심판이 끝나고 산 자들의 심판이 시작될 때 시작하는, 시점이자 동시에 기간이다. 9/11에는 나팔이 불려 산 자들의 심판이 도래한 시점을 표시했을 뿐 아니라, 9/11을 산 자들의 심판 기간의 시작으로도 표시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시며,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크시며, 재앙에 대하여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누가 아느냐? 그가 돌아와 뜻을 돌이켜 너희 뒤에 복을 남겨 주실지, 곧 너희의 하나님 주께 드릴 곡식 예물과 전제를 남겨 주실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엄숙한 회집을 소집하라. 요엘 2:12-15.

요엘이 나팔을 불라고 명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요엘서의 '나팔들'은 다가오는 일곱 마지막 재앙의 집행적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며, 라오디게아를 향한 회개의 부르심과 은혜의 기간이 임박하게 마감될 것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58:1.

이사야, 요엘, 요한과 베드로는 모두 마지막 때의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며,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보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이 말세, 9/11에 나팔이 불렸고, 그때 선한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걸은 이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였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릴 것이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1년 4월 21일.

9/11에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힘센 천사가 강림했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내가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층층이 높이 올라가는 큰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땅을 크게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지겠는가! 그때에 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시록 18장 전체는 땅에 임할 일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닥칠 일에 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바가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의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뒤흔드심과 전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나는 세상에 멸망이 있음을 안다. 주의 한 말씀, 그분의 강하신 능력의 한 번의 손길이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9/11에 늦은 비가 일요일 법령 때 온전히 부어질 것에 앞서 흠뿌리기 시작했다.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보다 덜한 나타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때 이른 비의 부으심으로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 늦은 비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바라보았던 ‘새롭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도말될 것이요, 또 그가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 20. 대쟁투, 611, 612.

‘새롭게 되는 때’의 완전한 성취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일어난다. 이는 경고가 ‘회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며, 죽은 자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되는 때’는 살아 있는 영혼들의 ‘죄’가 아직 ‘도말’될 수 있을 때 도래한다. ‘새롭게 되는 때’는 9/11에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산 자들의 심판의 시작을 가리킨다. 오순절은 복음 시대의 끝에 반복된다. ‘새롭게 되는 때’가 도래하자, 오순절에서 예표된 사건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되풀이될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때에는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불로 그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을 찬양함에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어눌한 혀가 풀리고,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담대히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나를 깨우고 내게 말하였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순금으로 된 등잔대 하나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그릇이 있으며, 그 위에는 일곱 등잔이 놓여 있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일곱 등잔으로 통하는 일곱 관이 있으며, 그 곁에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1-6.